

## 학창시절 색다른 경험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어요



환경운동가 이유진 위원

- 1996년, 국제환경탐방 공모전 당선
- 1999년, 녹색연합 활동 시작
- 2000년,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고발
-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환경 생태자문위원회 위원
-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 기획위원

40여 개 나라와 국제교류를 통해 환경운동을 펼쳐온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42)은 1999년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기후변화 이야기』 등 환경 분야 저서만 10여 권을 펴낸 이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그도 처음부터 환경운동가의 길을 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한 사건이 그를 색다른 길로 이끌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신문에서 ‘청년이여, 아시아를 보자’는 공모 프로그램을 봤어요. 학생 몇 명을 선발해서 국제 환경 문제를 탐방하는 것이었죠. 공모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죠.”

이 위원은 1996년 공모에 당선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필리핀에 있었던 쓰레기산은 젊은 대학생이었던 이 위원의 눈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땅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불모지였어요.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물을 마신 여성들은 병으로 고통받았죠. 병든 어머니에게서는 기형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필리핀의 참혹한 모습이 험사리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이 위원은 후에 당시 공모를 주최한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 지원하게 되었다. 녹색연합에서 13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난 2000년에는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을 밝혀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었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녹색연합 간사 시절 이 위원은 브라질 아마존, 몽골의 사막화, 사할린의 귀신 고래, 중국 두만강 인근의 곰 농장까지 닥치는 대로 탐사하며 전 세계를 누볐다.

“국내외를 둘러싼 기후변화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죠.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피해는 아프리카, 섬나라 등 약소국가가 고스란히 받아야 하니까요.”

이 위원은 세계를 탐사하면 할수록 공부야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느꼈다. 그래서 대학원으로 들어가 원래 전공인 경제 쪽에 중점을 두어 더 공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도교수이자 멘토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지도로 에너지 정책 분야의 재미를 맛보게 되면서 지역 에너지 정책, 지자체 에너지 정책, 자립마을·자립도시 쪽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제 활동에 도움은 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대책을 연구하려고 보니, 공부가 필요했고 그래서 연구한 거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바꾸는 큰 계기가 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 변경이라든지 변화의 계기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요건을 따지기 전에 과감하게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2호)

## 진로·진학(학습)·직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진로솔루션 방송연출가(PD) 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커리어넷 >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Q1 PD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운영, 섭외 등을 맡는 일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모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살림을 하고, 스태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PD가 하는 일입니다.

-SBS 시사교양국 백시원 PD

### Q2 무엇을 전공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나 언론홍보, 방송영상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전공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도 나중에 PD가 되고 난 후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대학 때 전공이 어학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하여 일본 방송을 보면서 공부한 것이 PD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방송국에 입사해 실무경험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EBS 수능교육부 김태중 PD

### Q3 메인PD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처음부터 PD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조연출 기간을 거치는데, 보통 시사교양국은 3~5년, 예능은 5~8년, 드라마는 6~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조연출 기간을 거친 뒤 '자기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송, 즉 첫 작품을 내보내는 일을 '입봉'이라고 하며, 그 작품을 '입봉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인PD라고 불리게 됩니다.

-SBS 시사교양국 백시원 PD

### Q4 PD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인가요?

PD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가, 출연자, 카메라·조명 감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스태프들이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감 능력도 중요합니다.

-MBC 편성국 문형찬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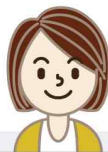
방송 PD를 꿈꾸는 고1입니다. 방송부장 활동, UCC팀 구성, 편집 작업 등을 하며 PD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잘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절망감이 큼니다. 방송 관련 학점인정기관에 가려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방송국 PD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진로전문가

"노력은 결코 나의 꿈을 배신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방송 PD들의 학벌이 좋기는 하지만, PD로서의 업무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학벌만 보고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PD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방면의 경험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진학전문가

"진로활동은 기본! 성적은 필수이지요."

학생은 희망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으니, 학생부종합전형에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 정성평가를 적용하는데 1단계에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의 서류 평가로 모집 인원의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진로 관련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직업전문가

"현재 주어진 것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아직 고1이니 원하는 대학 전공이 있다면 그 학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방송 PD 입사 준비는 대학에 가서 언론사 스터디나 영상제작 관련 동아리, 방송제작 관련 인턴 등으로 차근차근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PD가 되기 위해 꼭 방송사에 입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방송사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통신사, 온라인 콘텐츠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PD를 필요로 합니다.